

109 학년 1 학기 유라시아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5)」

주제: 한국의 FTA 추진 전략 및 정치적·경제적 효과

제 15 회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에서 한국어문학부 천하오야오(陳蒿堯) 조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치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들어 보았다. 천 교수는 처음부터 대만과 한국의 관계는 협력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더 많고 양국의 무역 파트너는 고도로 오버랩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FTA 는 단순한 경제·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 측면의 중요한 요인들이 배후에 숨겨져 있다고 하였다. 주요한 강연 내용은 크게 7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FTA 추진 배경과 여러 가지 고려 사항

한국은 1980 년대 중반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과 세계무역자유화의 영향을 받았다. FTA 가 무역 장벽을 허물고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FTA 추진을 검토했으나 FTA 추진이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이를 중단하였다. 1992 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이를 전면 재검토했다.

1993 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한국(New Korea)’ 정책 구상을 제출하였으며, '신경제 5 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주적인 혁신을 장려하였다. 1994 년에 '세계화정책'을 전개하여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경제 구조 재정비의 과정을 거쳐 FTA 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재평가하여 ‘통상교섭본부’를 설립하면서 FTA 관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2. 전략계획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적극적인 대외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요구 조건이 많지 않은 국가와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대내적으로는 FTA 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단체에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공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다.

그 다음은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인 대형경제팀과의 합의이다. 합의 대상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지며 단기 합의 대상은 일본·싱가포르·ASEAN 등이다. 장기적인 합의 대상은 미국·유럽 연합(EU)·중국등으로 경제적 적합성(suitability), 정치, 경제, 외교적 의의를 우선으로 한다. 그 전략은 3 단계로 나뉜다. 1998~2004 년 협상 경험을 주로 쌓고, 2004~2012 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 시장에 대한 다각적이며 동시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2013 년 이후로는 대다수의 국가에 대한 활용 성과 기간으로 나뉜다.

한국의 FTA 체결 대상 선정 분류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거대 시장, 과학 기술 협력, 거대 시장 진입을 위한 창구, 풍부한 자원지역을 위주로 선정한다. 둘째는 국가 안보, 천연 자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장 확대,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한다.

3. 정책계획 & 정치적 도전

한국이 FTA 를 추진하겠다는 사고적 측면에서 국제정치경제발전, 정책보상 및 분배정의, 국가입법감독, 대외협상기구조정등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 FTA 추진을 위한 보다 완전한 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를 묶어 국제협상을 강화한다. 「통상조약」에 근거하여 법률적 측면외에는 「통상촉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내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산업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FTA 직접피해보상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FTA 첫 체결국인 칠레에 한국 농업(포도) 피해보상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적관세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4. 작업순서와 국회감독기구

한국은 선입법 후심사를 하는 나라이며 대내부분과 대외부분으로 구분한다. 그 의도는 한미 FTA 타결 이후 생겨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국회가 우선적으로 국내기업의 보조정책을 시행하고 국회도 그 소임을 다했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고자 하였다. 보완대책은 2 단계로 시행한다. 첫단계는 협상전에 시행된다. 협상에 앞서 FTA 추진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을 먼저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먼저 상황을 파악 후에 회답에 들어간다. 법안이 체결된 뒤에도 2 단계는 국회동의권을 행사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1 단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회의 정치경제적 충격

FTA 체결은 한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고, 삼성은 한국 GDP 의 30%를 차지한다. 대기업은

비관세장벽을 정부가 해소해 주기를 원하나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FTA 체결 후에 물가 상승, 계층 간의 대립, 이익 불균형, 빈부 격차,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전략, 성과, 서명

한국은 칠레와 처음으로 FTA 체결하였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멕시코는 미주시장 진출 창구 국가가 된다. 「외곽자극」과 「다케도병행」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여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발판 국가로 배치하고 미국, ASEAN 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을 끌어들여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 미국은 별도로 FTA 운영 협상 효과를 이용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주요수출국을 설득하여 FTA 협상한다. 한국이 누적된 협상 능력을 가지고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본토와 FTA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에도 동참하게 된다. 한국의 FTA 체결 현황은 현재 16 개국은 이미 합의하였고, 합의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은 나라는 4 개국, 협상중인 국가는 7 개국(한중일 타결)이다.

7. 한국 FTA 전략을 통해 대만에 시사하는 점

- (1) 협상조직계획 및 운영모델: 협상단 구성원은 제일선에 배치되는 인력과 배후지원인력 및 미래의 인수인력까지 포함한다. 협상단은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협상 카드를 늘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 (2) 국제경제무역 협상 인재 육성: ①정부는 경제무역, 법률 등의 전문 인재를 초빙 채용방식으로 유치한다. ② 대기업이 싱크탱크를 만들어 대학생 육성을 도맡고, 육성을 마친 뒤 학교로 돌아가 봉사를 한다.
- (3) 자유화 개방의 준비: 대만은 외교적, 정치적 한계로 인해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번역: 장민자(張珉慈)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